

2015년 5월 12일 엄마생신♥

오늘은 엄마 생신날!

지난 2년은 스리랑카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챙기는 생신!

스리랑카 자취생활 경험을 토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다.

조출하지만 열심히 끓인 미역국과 꽃다발 선물로 아침을 시작했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나도, 우리 삼남매도 행복했다^^

저녁엔 아버지까지 가족이 다 모여서 파티를!

맛있는 피자과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함께여서 더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Human & Memory Archives

